



전기차와 이차전지

2019년 전기차 시장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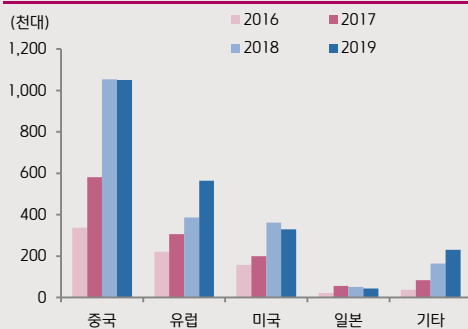


연초부터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한 틈에 유럽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주력 시장으로 부상했다. 유럽 OEM들은 대부분 한국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다수의 중저가 신모델이 출시돼 양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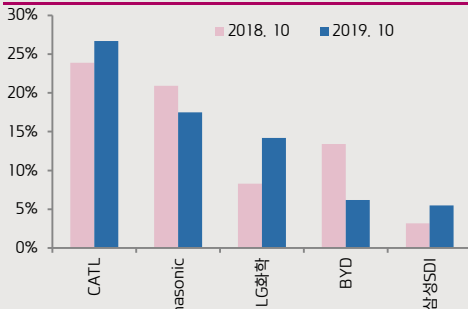
전기전자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변화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유럽이 주력 시장으로 부상

2019년 글로벌 전기차(상용차 제외) 시장은 10% 성장한 222만대로 추정된다. 2017년 58%, 2018년 64%에 비하면 성장률이 현저하게 저하됐는데, 지역별로 유럽의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중국과 미국이 ① 정부 보조금 축소, ②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등으로 역성장한 결과다.

글로벌 Best Seller는 Tesla Model 3 30만대, BAIC EU 시리즈 11만대, Nissan LEAF 7만대 순으로서 Model 3가 압도했다. Tesla의 연간 판매량은 367,500대로 50%(YoY) 증가하며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유럽은 지난해 56만대로 46% 성장해 주력 시장으로 부상했다. 강력한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은 연평균 3.6%, 12월에는 6.1%까지 상승했다. 침투율 상위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56%, 아이슬란드가 25%, 네덜란드가 15%에 도달했다.

올해 유럽은 다수의 중저가 신모델이 출시돼 양적 성장을 이끌며, 100만대 규모에 근접할 것이다. Volkswagen의 첫 MEB 모델인 ID.3는 올해 유럽 내 6만대 이상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판매량 3위에 도전할 것이다.

중국 전기 승용차는 105만대로 0.4% 역성장했다. 특히 7월 이후 정부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30%나 역성장했는데, 12월에는 역성장 폭을 줄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 침체를 우려해 올해 보조금 삭감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부각됐다. 이로써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기다렸던 2021년 보조금 폐지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미국은 33만대로 9% 역성장했다. Tesla가 주도한 혁신 성장이 주춤한 상태다. Tesla에 이어 GM 전기차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이 축소됐으며, 올해도 연방 및 주정부의 보조금 축소가 예고된 상태다.

>>> 배터리 경쟁 구도 변화 뚜렷

유럽 전기차 시장 호황과 중국 및 미국 시장 침체에 따라 7월 이후 중국 및 일본 배터리 업체들의 하락세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 10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SNE Research)을 보면, LG화학 14.2%, 삼성SDI 5.5%, SK이노베이션 2.7%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p, 2.3%p, 1.9%p 상승한 반면에, Panasonic과 BYD는 각각 3.4%p, 7.2%p 하락했다.

지역별 Best Seller

2019년 전기차 제조사별 판매량 순위는 Tesla 36.7만대, BYD 22.1만대, BAIC 16.0만대 순이었다. 그 뒤로 Volkswagen 그룹은 14.2만대로 2018년 대비 71% 증가했고, 현대기아차는 13.0만대로 57% 증가했다.

글로벌 Best Seller는 Tesla Model 3 30.1만대, BAIC EU 시리즈 11.1만대, Nissan LEAF 7.0만대, BYD Yuan/S2 EV 6.8만대, SAIC Baojun E 시리즈 6.0만대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Model 3 점유율이 48%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로 Toyota Prius Prime 7.2%, Tesla Model X 5.8%, Chevrolet Bolt EV 5.0%, Tesla Model S 4.3%, LEAF 3.8% 순이었다.

유럽에서는 Model 3 17%, Renault Zoe 8.4%, Mitsubishi Outlander 6.1%, LEAF 5.9%, BMW i3 5.8%, VW e-Golf 5.1%, 현대 Kona 4.0% 순이었다.

중국에서는 BAIC EU 시리즈 9.4%, BYD Yuan/S2 EV 5.8%, SAIC Baojun E 시리즈 5.1%, Chery eQ 3.2%, BYD Tang PHEV 2.9% 순으로 모델별 큰 격차 없이 현지 브랜드가 대부분 시장을 지배했다.

Tesla 글로벌 확장 성과

Tesla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50% 증가한 367,561대였다. Model 3를 미국 외에 유럽, 중국으로 확장한 결과다.

모델별로는 Model 3가 106% 증가한 300,815대인 반면, Model S/X는 33% 감소한 66,746대로 자체적인 수요 상쇄도 상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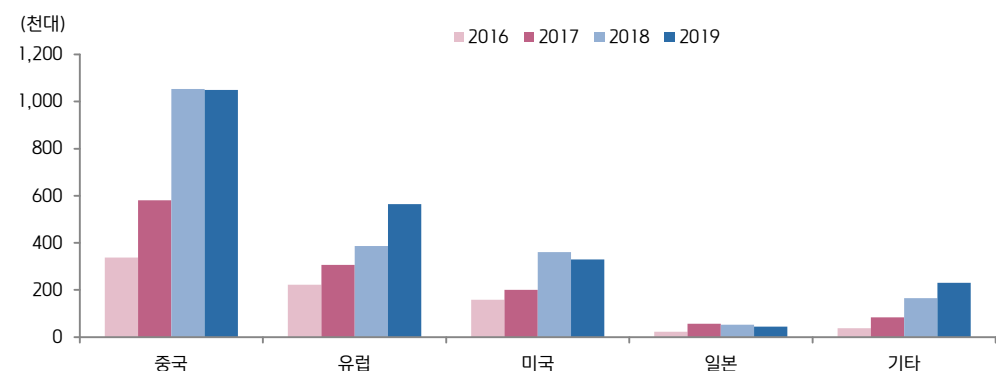
지난 연말부터 Gigafactory Shanghai를 가동해 중국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고, Model 3 생산능력을 주당 3,000대로 높였다. Gigafactory Shanghai는 미국 내 생산 시스템 대비 비용을 65%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여름에 Model Y를 출시할 예정이다.

Volkswagen 도약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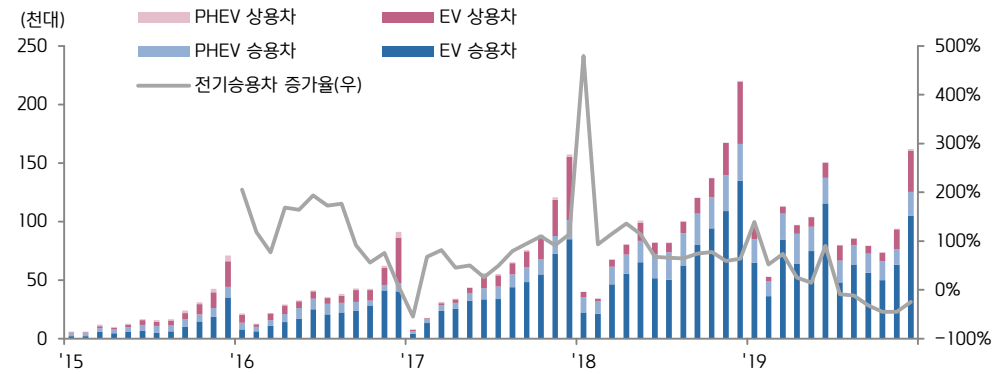
Volkswagen은 MEB 기반 전기차 생산량 100만대 도달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3년에 실현하고, 2025년에는 150만대 생산 체계를 갖추 계획이다. ID.3는 1/1 일 기준 37,000건 이상의 예약을 확보했다. Volkswagen의 도약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도약을 의미한다.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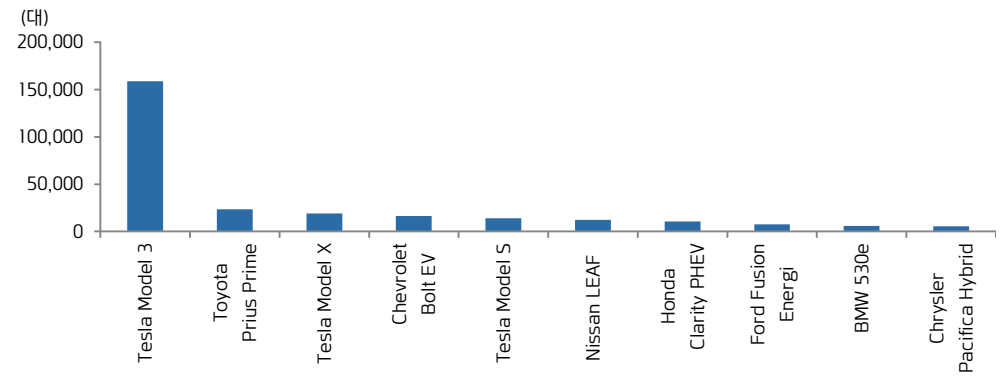
자료: InsideEVs, 중국자동차공업협회, EV Sales, 키움증권

중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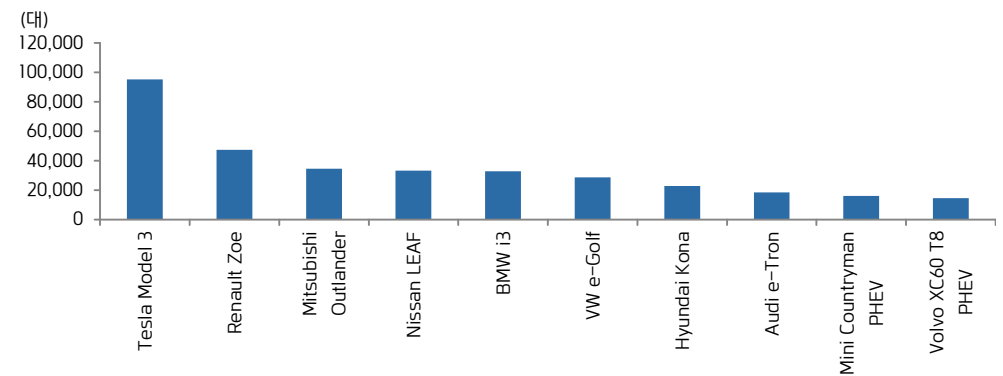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미국 2019 전기차 Best Se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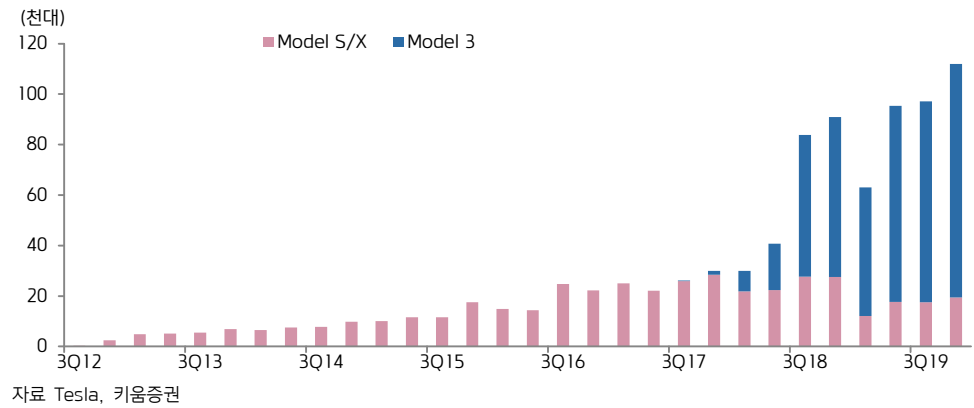
자료: InsideEVs

유럽 2019 전기차 Best Se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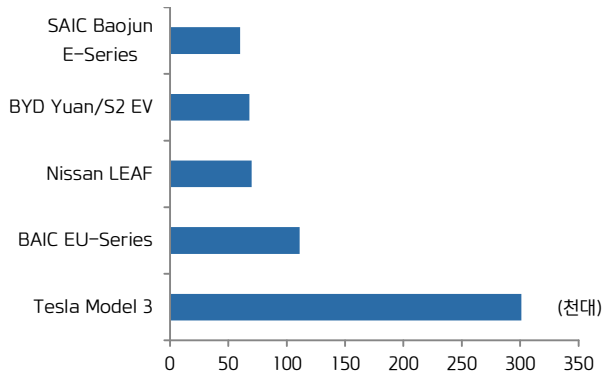


자료: EV S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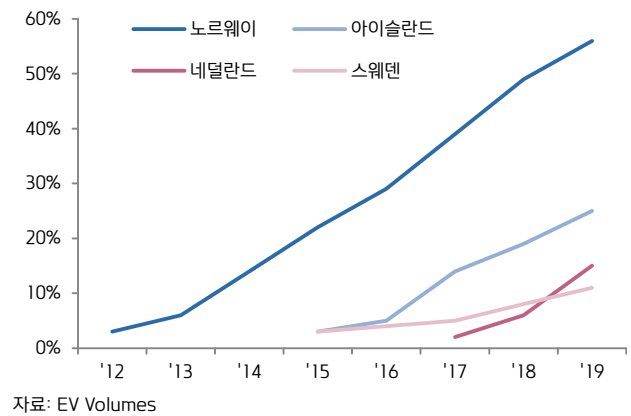
Tesla 분기별 전기차 판매량 추이



글로벌 2019 전기차 Best Seller 모델



전기차 보급 상위 4개국 침투율 추이



Mercedes-Benz EQC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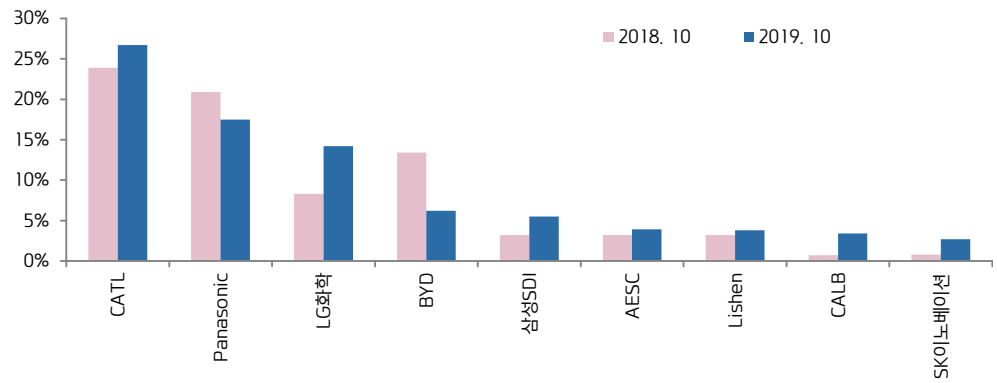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Nissan 새 콘셉트 전기차 ARIYA



자료: 키움증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변화



자료 SNE Research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추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추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추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추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9/01/01~2019/12/31)

매수	중립	매도
97.33%	2.00%	0.67%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